

1999년 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문화여성공보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일 시 : 1999년 11월 23일(화)

장 소 : 문화여성공보위원회

(10시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학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경기도 여성의 사회교육을 통한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의 예산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홍수자 여성회관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회관장 홍수자 네.

○ 위원장 윤학상 안성자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네.

○ 위원장 윤학상 운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운영숙 네.

○ 위원장 윤학상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여성회관장, 북부여성회관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에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여성회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홍수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회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여성회관장 홍수자.

○ 위원장 윤학상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홍수자 경기도여성회관장 홍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서무담당과 교육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김정문입니다.

(인 사)

교육담당주사 이병우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여성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가르침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회관 직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성회관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99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의 목표는 여성의 평생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증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고충상담 및 취업알선을 활성화하고 여성자원봉사 시범센터를 내설있게 운영하며, 양질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여성사회교육 등 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목적,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여성지위 향상의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지향적인 여성상을 구현하고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48개과 15,344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교육기간은 과목의 특성에 따라 1개월, 5개월, 7개월, 10개월까지 다양하게 편성하여 운영했습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의 여성사회교육 실적을 총괄로 보고드리면 컴퓨터과 등 기술교육은 19과목 47개반에 1,266명이 수료했으며 현재 1,391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건강체조과 등 문화교육은 18과목 30개반에 604명이 수료했으며 현재 1,025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국어과 등 교양 및 특별교육은 348명이 수료했으며 현재 121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수의만들기 등 단기교육 및 특강은 8,48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단기과정인 워드프로세서기능사 시험대비반 44명이 지난 토요일까지 교육을 받고 11월 21일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단기과정으로 웨딩드레스만들기 등 13과목에 305명을

12월 한 달 동안 교육하겠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만들기 교육을 12월 10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도 제1차 수강생모집을 금년 12월 21일에 모집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여성사회교육의 교육과정별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세부내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육과정 중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보고드리면 사회교육 실기강사 양성반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교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양질의 강사를 배출·공급하고자 금년에 5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했으며, 인터넷 정보검색사 과정을 신규로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관할 협력차원에서 경기대학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성정보와 기초교육을 위한 컴퓨터 기초 무료교육과정도 새로이 개설 운영했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서작성과 인터넷 정보검색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정보화에 뒤지지 않는 여성이 되도록 무료로 2주 동안 13기에 걸쳐 218명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직장인을 위해 야간반과 주말반을 개설 운영했으며, 취업유망직종인 텔레마케팅과 버려지는 신문지의 재활용을 위해 신문지공예과 등을 신규로 개설 교육했습니다. 여고졸업반 학생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기 컴퓨터과정을 개설했고,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수의만들기 단기과정을 개설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 실시결과 한식조리사, 미용사, 워드프로세서기능사, 조화공예기능사 등 기술교육과정에서 227명이 관련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꽃꽂이 사범증, 바둑 초등학교 지도강사 등 문화교육과정에서도 27명이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양장부문 은상과 한복부문에 동상 및 장려상을 받았으며, 한글·한문서예, 사진 등 총 65명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교육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강사 연찬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여성회관의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와 교육담당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여 수강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사 연찬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연찬회는 지난 6월 29일 저희 여성회관 강당에서 강사와 교육담당자 81명에게 아주대학교 최운실 교수의 성인교육 노하우와 스페셜리스트 파워업이라는 주제와 류석호 조선일보 경기취재본부장의 소비자 만족홍보라는 주제로 신문기사를 어떻게 써야 잘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연찬회는 12월 중에 강사와 교육담당자를 상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상담 및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전반에 대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조언·지도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만

들고 최신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여성상담실적은 가족갈등 22건, 법률문제 33건, 신상문제 65건, 교육문제 5건, 구인·구직 5,281건 등 총 5,406건을 상담했습니다. 취업은 일일파출 3,010명, 장기파출 25명, 출장요리 16명, 간병 1명, 산후조리 16명, 음식점 10명, 도배 111명 등 총 3,189명을 무료로 알선했습니다.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노동부의 Work-net 취업정보를 매일 게시하고, 수원인력은행 취업정보를 매주 게시하였으며, 기타 PC통신을 통한 직업정보를 탐색하여 수시로 게시하여 수강생과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전문상담원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시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아름다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봉사활동 실적은 5,245명이 참여하여 23,586시간을 봉사했습니다. '99년도 자원봉사활동 중 특기사항을 보고드리면 수해발생시 파주, 동두천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력봉사를 했으며, 결식아동돕기도 했고, 화성군 정남면에 소재한 할머니 양로시설인 성모루이체의 집을 찾아 지난 5월, 9월, 10월 3회에 걸쳐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고 노력봉사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방문시에는 설장고·민요·사랑가·창부타령·북춤 등 다양한 전통가락과 우리 측음의 효도공연을 펼쳐서 할머니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다과상에 차려진 행사장 사이사이를 돌며 할머니 한 분 한 분께 약간의 용돈을 드릴 때는 할머니들이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유당마을, 성혜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신규로 봉사하게 됐으며,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원 중 조장 10명을 한국여성개발원에 1박 2일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12월 중에 사업평가대회를 개최하여 모범봉사원 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등 복지시설을 저렴한 비용과 친절한 서비스로 활용도를 높이고 저소득 계층에게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예식장 95건, 미용실 2,831건, 유아수탁 148명, 도서대출은 1,394건 등 총 4,468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실직가정의 여성과 자녀가 무료로 이용한 실적은 예식장이 5건, 유아실이 5건이 있습니다. 예식장 등의 복지시설 운영실적이 금년도 목표치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의 복지시설을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계유지 부담으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성가장 실업자에게 실질적인 취업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노동부에 취업훈련사업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3개월씩 2기에 걸쳐 자격증 취득반인 한식조리사 과정을 운영해서 5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취업훈련생에게는 노동부에서 훈련비와 재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1기 교육은 3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30명을 교육한 결과 한식조리사 필기시험에서 1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29명이 응시했는데 전원 합격했으며, 이중 10명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수료생 중 3명은 취업을 했으며 2명은 식당을 개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2기 교육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24명을 교육한 결과 한식조리사 필기시험에 21명이 응시하여 14명이 합격했으며, 지난 11월 14일 실기시험에 응시해서 12월 시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취업훈련 수료생의 자격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특강을 실시하고 3개월 동안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료생 활동사례 수기공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료생의 성공적인 활동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많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수기공모를 했습니다. 수기공모에 44편이 접수돼서 심사결과 우수작 10편을 선정해서 도지사표창과 함께 부상품을 지급했습니다. 작품집은 각 시·도 및 시·군의 도서관, 여성회관, 자료실에 배부하여 많은 여성이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나바다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알뜰장터를 개설해서 재활용 가능한 생활용품과 우리 농산물 등을 판매해서 남은 수익금으로 수해지역에 성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어려운 이웃 등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바다운동을 통해서 버려질 용품 7,690점이 재활용됐으며 이중 276점은 장애인에게 무료로 기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품전시 및 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여성회관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21개과에서 780점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9개과에서 13편을 발표해서 성취감을 갖도록 하고 관람객들에게는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 1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들에 대해서는 9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

별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학상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으니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고양시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회관장께서 회관운영의 당면현안에 대한 개선책과 새천년에 대한 비전제시가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제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각 여성회관의 공통점입니다마는 문화교육에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화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계층들이 좀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술교육과목과 컴퓨터교육에 좀더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마케팅과의 신설은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3,18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일파출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왜 이 분야의 취업률이 높은지, 그리고 이들의 관리는 여성회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게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월 얼마씩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주 위원 김기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수강료 차등화 방안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 중이라고 했는데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된 내용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문화교육수강생의 대회입상과 관련해서 문화과목 수강생 및 수강생의 '99년도 대회입상이 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대회에 입상했는지, 입상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에 대한 사기조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홍수자 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정원의 등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

해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정원의 등록으로 우선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과 '99년도의 정원의 등록과목과 인원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정원의 등록자는 수강료만 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료를 지원해야 많은 저소득 계층이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또 강사 공개모집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을 위해 새로이 강사 공개모집 중이라고 했는데 자격기준, 응모현황, 응모인원 등 각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해주시고, 심사기준, 심사위원, 합격자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강사양성반 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강사양성반을 신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양성반 수료생 중 시·군 여성회관 등에 강사로 채용된 실적이 있는지, 또한 강사양성반의 교과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남 위원 장영남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수원 경기도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이 세 군데가 전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보고받는 내용은 너무 거의 동일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경렬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새천년을 맞는 여성의 각오가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 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성자원봉사라든가 모든 자료를 아주 광대하게 하기 위한, 뺑뺑이 같은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우선 한 가지 제안부터 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여성회관에서 연간 수만명의 교육을 받는 교육생 중에 다만 1년에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시간을 내서 여성이 앞으로 살아나야 할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여성의 각오나 전문적인 교육을 전체 여성들한테 시켜서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여성교육의 실태를 보면 모두가 가정에서 취미생활, 문화생활 이런 부분이에요. 여성의 엘리트 부분. 남성과 동일시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남성을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것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자원봉사활동 시민센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인원수에서나 시간에서나 무척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내용으로 볼 때는 약 40% 정도가 여성회관 자체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적을 높이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99년이나 '98년, 북부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났습니다. 실제 자원봉사라면 그쪽에 많은 인력동원이 되던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행사에 맞추기 위한 인원과 시간에 많은 점을 두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수원권 중심 운영 탈피 및 원거리 수강생 통학 대책마련에 볼 것 같으면 모집정원의 50%를 수원지역 거주자 우선 모집완료라고 하셨는데 그 완료라는 것은 50%를 수원권 외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실제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0%는 수원권외에 주겠더라는 광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하고 현재 수원 인근지역인 용인이나 오산이 되겠죠. 이쪽 지역에서 몇 %, 그러니까 몇 명이 참석하고 있고 몇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서 등 민원처리 내역이 전혀 없다고 여기 자료집에 보내주셨는데 이는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모든 여성의 욕구를 100% 충족시킨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진정서 등 민원의 불만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정말 경기도민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명단하고 인적사항을 이따 답변 전에 전 위원들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영남 위원님 다음으로 조금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강사 인적사항을 보니까 제가 봐도 아주 터무니없이 해당 전문도 아닌 분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거주지가 서울인데도 여기에다 강사로 해 놓고 전공이 너무 무관한데도 강사로 배치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전공하고도 문제가 있고 교육을 뭔가 교육답게 시켜야 되는데 여성회관 뭐하고 있습니까? 생활도예강사가 관광학과 나와서 생활도예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체육같은 건강체조나 고전무용 이런 것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 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불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겠어요? 전부 원점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에 어떻게 뽑고 있는지 확실하게 해주시고 최근 5년 동안 자격증 취득반에 대한 입학인원과 졸업 인원수 또 그리고 몇 %나 자격증을 취득했는가 이것 자세히 좀 해 주시고 5년 동안의 강사 근무기간과 강사의 실태, 교육기간을 확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꽃꽂이와 바둑만 봐도 200명이상이 자격증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불과 2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도 무슨 자랑거리나 된 것처럼 밑에 해 놓았는데 자격증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가 잘 좀 연구하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장영남 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성격으로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회에서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여성회관의 각종 교육이 수원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한수이북을 제외한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

니다. 심지어는 경기도 여성회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수원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지적에 의해서 오늘 주요업무보고 '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수원중심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서 모집정원에 수원외 지역거주자의 50%라고 우선 모집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제출자료 13쪽에 수강생 거주 시·군별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에 4,755명 중에서 수원거주가 3,894명, 수원외 거주가 8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가 안 돼 있죠. 완료라는 얘기가 벌써 거짓 보고서라고 봐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보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수강생 거주 시·군별 현황 3쪽에 '98, '99년 대비를 해 봤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치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98년 총계가 4,537명, '99년 4,755명 총 21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수원에 200명이 증가하고 수원외에 거주자는 18명만 증가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98, '99가 똑같으냐고, 여기 좀 쭉 보세요. 성남이 '98년 19명, '99년 19명, 의정부가 1명, 1명, 안양이 '98년 21명이었는데 이번에 5명 늘어난 26명, 부천은 8명, 8명, 광명은 3명, 3명, 이것은 억지로 만들래도 될 수 없는 수치예요. 상세한 기록을 지금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내기 위한 자료이지 실제로 과연 이렇게 되냐. 이만큼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기록으로 보면 수원 경기도여성회관에서 각종 사회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교육의 한 축을 여성회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나 회관장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지금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각 과의 지원실태와 현재 교육을 받기 위한 대기자 숫자를 좀 자료로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의 가정에 컴퓨터 1대 갖기 운동을 해서 지금 농촌에까지 컴퓨터를 정부에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컴퓨터 교육이 더욱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관장의 대책이나, 현재 여기 컴퓨터 교육의 연 수료생이 다른 것에 비해서 턱없이 적고 경기도 인구에 비해서 생각하면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대폭적으로 컴퓨터 교육확대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은 앞으로 여성의 사회지위 확대 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회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구 위원 박윤구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했다면 강도가 상당히 높았을텐데 미리 질의를 해주시는 바람에 부드러운 질의가 됐습니다.

13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면 실체는 좀 수강생 수가 고양에 한명, 한명 짜 맞추는 냄새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실 적에 위 사항의 연도별 세출대비 세입, '98년도보다 '99년도 세입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세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강료가 인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횟수가 늘어난 것인지, 그리고 세출도 많이 줄었어요. 이 사유하고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에 여성회관 복지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예식장 사용실적이 10월 31일 현재 전년도 270건에서 금년도 95건으로 3배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서관 사용건수도 900건이나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식장 무료사용시 '98년도에 장애인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3건, 장애인 2건 해서 5건입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사실 절대적인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주간경기 등 지역 언론을 비롯한 종합 언론매체에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극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수강생모집이 이틀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의 9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수강생모집을 감안한다면 사실 경기북부지역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제2차 유아모집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코자 한다고 '99년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유아모집은 지역이 좁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누가 이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접수와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시·군 1여성회관의 시대를 대비해서 도여성회관으로서 시·군 여성회관과의 차별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여쭙보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회관에 부임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 여성회관장 홍수자 2년 넘었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 여성회관장 홍수자 경기도에서 여성과장이었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퇴장하신 후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북부여성회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북부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자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이상호입니다.

(인 사)

교육담당 김종근입니다.

(인 사)

상담담당 안효미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북부여성회관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99목표 및 기본방향, '99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인원 및 주요기능, 예산현황, 시설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인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20명으로 기능직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0년도에는 별정직 7급 5명, 8급 4명, 그리고 청원 1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근로여성의 신상상담, 영세근로여성의 자립기반조성,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정부시책의 계몽지도와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 6,155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4,255억원으로 16.3%이고, 수강료 수입은 2억 1,600만원으로 82.6%입니다. 이자수입은 3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3,958만 8,000원으로 인건비 41.3%, 일반운영비 37.7%, 업무추진비 4.2%, 복리후생비 9.0%, 자산취득비 5.1%, 시설비 1.4%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목표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진과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 어경찬 위원 넘어가시죠.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숨은 자질을 개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간 50개 과목에 1만 1,020명을 대상으로 연 3회에 4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1만 459명으로 계획대비 94.9%이며 교육수료는 8,132명이고 현재 2,327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목표는 예식이 150건, 미용이 2,500건, 유아실 운영이 180명, 도서실 운영이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예식장이 58건, 미용실은 1,889건, 유아실은 172명, 도서실은 1,750명을 무료로 개방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상담 및 취업알선은 여성들의 고충상담으로 여성의 선도와 건전가정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연간계획 상담을 3,000건, 취업 2,000건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고충상담이 1,928건, 법률상담이 393건, 기타 1,450건 등해서 3,771건을 상담했으며, 취업알선은 일일근로직이 1,229명, 자영업장 알선이 325명, 출장요리가 43명, 도배가 30명, 산후조리가 166명, 장기근로직이 6명 등으로 1,799명을 취업 알선시켰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전개사업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마련하고자 연간 1만 2,000시간을 목표로 해서 2,000명의 자원봉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봉사활동이 1만 1,801시간이고 1,694명이 노력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교육은 신규가 4회 180명, 재교육이 1회 120명, 자원봉사자는 250명에서 338명으로 인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품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마련으로 10월에 수료생들의 작품을 1,000여점 전시해 가지고 수강생들의 일반 주민 4,000명이 관람을 해서 여성회관의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검소한 생활분위기 조성 및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과소비 추방을 위하여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목표에 저희 회관에서는 4월과 9월, 연 2회의 알뜰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는 지역정보지에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과 수강생들이 참석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중고물품에 의류 수입금이 113만 2,000원이고, 제과제빵에서 제과를 만들어서 56만 7,000원, 배추·무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여 46만 8,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그러니까 소년가장

이나 양로원 시설, 고아원같은 데 쓸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중고물품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안 쓰고 있는 생활용품이나 의류같은 것을 모집해서 연중 상설로 자원봉사회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중고물품판매 수익금은 183만 4,000원, 중고물품수집 기증품은 1만 2,925건, 중고물품 교환은 160건, 장애인 시설기증은 280건, 연천군 수재민돕기 성금으로 40만원을 기이 지난 번에 썼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역시 연말 불우이웃 기금으로 위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부지역에 사는 장애인 무료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 홍보를 두차례하여 3쌍의 장애인 결혼식을 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흡족해 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도 역시 지체부자유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결혼식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북부여성회관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더 훌륭한 여성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학상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업무보고서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첨부해서 전년도에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했는지 아니면 추진 중인지 밝혀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한 눈에 들어오도록 성의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다는 북부여성회관만큼은 이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어떠한 행정사무감사 조치지적사항들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추진중인지 업무보고서에 실리지 않았어요. 이러한 작은 부분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자세가 많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식장 운영실적,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부분입니다. 경기도여성회관 보다는 결혼실적이 부족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더 홍보부분에 적극성을 기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식장 활성화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입니다, 여성회관하고. 1시·군 1여성회관시대, 북부여성회관. 앞으로 북부지청이 승격되면 나름대로 역할이 더 커질텐데 도여성회관으로서 그 지역의 시·군 여성회관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자료 요구서 69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자체교사 개인별 현황을 제가 요구했지요?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네.

○ 박상호 위원 주요학력 및 경력 포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페이지를 보면 학력은 대·고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느 학교 무슨 과, 전공과목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하고, 자격 및 경력을 보시면 자격은 꽃꽂이사범 1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력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세부적으로 성의있게 자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남 위원 외래강사의 명단, 자료요구서에 제출되었나요?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네.

○ 장영남 위원 있습니까? 외래강사 인적사항의 첨부가, 자체강사만 본 것 같아서…….

(「12쪽에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앞으로 2001년도에는 북부여성회관의 인원이 전부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감축예정이 10명이고, 그런데 현재 외래강사 말고도 전부 운영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인건비 나간거나 세입을 따져보니까 모든 게 또 비슷비슷하게 맞아 돌아가고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현황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은지 수십 가지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수강생이 그때그때 잘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가끔 지방여성회관을 방문하면 인기학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우선 자동차정비과가 있지요?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네.

○ 장영남 위원 자동차정비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여기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서는 취업이라든가 법률, 이런 것은 전부 상담원이 있는데 학대받는 여성이라든가 가출여성, 청소년, 일반여성 성폭력이라든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상담에 대한 상담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실행을 했고 지금 현대 여성들이 ‘한국의 여성은 아이를 버릇없이 키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으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적합한데 그 부분을 교육시킬 사람이 어머니들이예요. 어머니들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뭐든지 실적이나 이런 쪽에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결혼식을 해서 너무 고맙다, 눈시울이 찼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정에는 10쌍을 하기로 했는데 3쌍밖에 못한 이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인이 자존심 상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10쌍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3쌍밖에 못했으면 7쌍에 대한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고 대충 10쌍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장애인 10쌍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는지, 그냥 즉흥적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질의에 뭐한 얘기지만 앞으로 2000년 뉴밀레니엄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도 이 여성회관에서 배출해야 합니다.

매일 쿼트라든가 똑같은 얘기지만 모든 게 문화 쪽에, 집에서 하는 여성의 일, 우리가 수백년 동안 했던 여성의 일을 사실 지금 재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대 여성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교육내용을 폐지하고 진정 교육을 수강생들이 원하는 설문조사를 통한다든가 간단명료하게 해서 만약에 1과에 2, 300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질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동창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북부여성회관에서 교육생이 연간 1만여명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설치가 몇 년 됐는지, 총동창회 회원수는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총동창회가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개최되는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총동창회 회원은 몇 명인가, 회장은 누군가,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몇 가지 총동회의 사업보고를 볼 것 같으면 음식바자회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동창회입니다, 현재 교육생 말고.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이 바자회에 소요되는 금액은 자체조달인가 또는 보조금을 지불하는가,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어디서 사용하는가, 두 번째 작품전시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작품전시회에 동창회원의 참가인원과 동창회원으로서의 출품은 몇 점이나 되는가, 또 열 번에 걸쳐서 등산대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참가인원과 등산지는 어디였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해복구를 다섯 번에 걸쳐서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총동창회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라 했더니 현재 교육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하고 총동창회하고 같이 뭉뜨그려서 보고서를 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동창회가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서를 내는 것이 솔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아까 여성회관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부분에 좀더 강화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술교육이 24개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교육이 15개 과목이고, 그래서 기술교육과목을 내년도에는 좀더 늘리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과목에 이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강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과목을 좀더 늘리는 것과 현재 있는 기술교육과목도 강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퇴장하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수진 계장입니다.

(인 사)

직업훈련팀장 이성원 팀장입니다.

(인 사)

능력개발팀장 백미현 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올해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으로 저희 센터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가 열리는 새로운 2000년대에는 여성의 정보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99년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일반현황으로 연혁, 기구 및 정원, 기능, 예산규모,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연혁은 '96년도부터 준비단계 등의 절차를 걸쳐 '97년 10월 14일 개소하여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98년도 제1차 행정조직개편시 6명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현재 1담당 2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저를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16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이나 결원인 전기기능직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하여 센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 기능, 예산,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유인물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로는 직업훈련 전문기술 교육, 여성 SOHO창업지원 사업, 컴퓨터 기초교육 및 정보제공, 여성정보 기초화사업, 취업적응교육, 여성 리더십교육, 부모교육강사 양성사업, 모자가정 자립지원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쪽 '99년 업무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99년도 업무기본방향은 여성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취업기회 확대, 실업극복을 위한 취업 확대 교육 및 지원강화, 여성 프로의식, 리더십 배양의 전문성 확보, 모자가족 자립지원 시범사업 및 여성복지인력 전문성 확보 등에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여성의 종합적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인력 인프라 구축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유인물 11쪽 직업훈련 전문기술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으로써 전문기술 5개 과정, 기능기술 2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기술 과정으로는 오토캐드, 웹디자인, 그래픽,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멀티미디어,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 3개반 59명을 수료했으며 오토캐드의 건축반과 산업디자인반, 애니메이션 등의 3개반 87명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기능기술 과정으로는 제과제빵, 피부미용반으로 구성되어 오전·오후반으로 운영했으며 현재 81명을 수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9년 1월 모집공고를 거쳐 '99년 2월 모집설명회를 개최, '99년 3월에 개강하였으며 2차 모집은 8월에 개최하여 '99년 9월에 개강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현황으로는 현재까지 수료 또는 재학인원 226명 중 7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과정별로 오토캐드 53%, 웹디자인 19%, 제과제빵 61%, 피부미용 44% 등을 취득했으며, 기타반과 취득하지 못한 교육생은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멀티미디어반과 컴퓨터그래픽반은 LTC국제인증서를 수여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현황으로는 교육 수료인원 총 139명 중 51.1%인 7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미취업 수료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많은 인원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학중인 오토캐드반 학생 중 42%가 이미 취업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약 3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8개과정 10개반의 과정과 비슷하게 8개과정 9개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도의 맞춤형 연계학과 관련하여 2개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총 8개과정 11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 여성 SOHO창업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SOHO사업 추진목적은 활성화 및 여성 실업해소, 여성 인력자원의 사회적 통합화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케팅 판매가 가능한 정보통신 응용분야의 업종으로서 대표자를 포함, 총인원 5명이내의 여성중소업체 및 SOHO창업을 준비중인 여성예비창업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6개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사무실과 사무집기 및 공동이용시설로서 최고급 초고속정보망, 창업관련 교육·경영자문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9년 3월에 6개업체를 선발하여 '99년 4월에 입주를 마쳤으며 참가업체에게 창업교육 10회, 벤처박람회 참가지원 2회와 창업지원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SOHO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세무, 특허법률 및 정보통신 기술 등을 장려해 주고 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창업 성공률 극대화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예비창업자가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컴퓨터 기초교육 및 정보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컴퓨터 기초반 3개월 과정 2개반에 60명, 컴퓨터 무료교육 16회에 480명, 경기도 주부PC경진대회 1회에서 54명, 정보자료 수집제공, 경기여성인명록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컴퓨터 기초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2개반이 운영되어 58명이 수료되었으며, 컴퓨터 무료교육은 매주 토요일마다 6시간씩 2주 단위로 16회에 걸쳐 480명이 교육을 마쳤거나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주부PC경진대회는 우리 도 31개 시·군에서 48명이 참가하여 워드프로세서와 엑셀, 인터넷 등에 대한 시험을 거쳐 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성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은 1,414건이며, 경기여성인명록은 현재 기초자료 수집중이며, 2000년 2월말 발간예정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00년 향후계획으로는 테마별 정보탐험 6회에 180명, 컴퓨터활용기초교육 2회에 60명, 토요 컴퓨터 입문교육 3회의 90명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 여성정보 기초화사업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초화사업은 여성이 특허된 공공근로사업 실시를 통한 여성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인 어린이보육시설, 여성사회교육기관, 자원봉사기관에 면접조사를 통한 여성정보의 수집과 경기넷을 활용한 여성정보의 접근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사표 개발, 공공근로요원 및 시·군 담당자 교육, DB프로그램 개발, 면접조사 및 전산입력, 자료집 발간 등이며, 총사업 참여인원은 5,589명으로 용역기관 수는 경기도소재 전체 보육시설, 사회교육기관, 자원봉사기관인 3,674개 기관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군의 공공근로인건비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련기관 인터뷰 및 조사기관 파악, 공공근로요원 및 31개 시·군 담당자 교육을 '99년 1월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와 전산입력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거쳐 입력과 조사사업, DB개발을 '99년 1월에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입력자료 수정과 편집은 '99년 7월에서 12월까지 수정 및 편집을 마쳐 현재 우리 도 경기넷에 여성정보란과 저희 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약 3,674개 기관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수록된 자료는 '99년 12월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 취업 적응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목적은 직업훈련교육생의 투철한 직업의식 고취, 여성으로서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적응능력을 키우는데 있었습니다. 기본방향은 교육생의 교육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과 강의식과 참여식 교육의 병합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했습니다. 취업여성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총 29회 연인원 713명을 교육하였으며 비용은 3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업훈련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 22회에 걸쳐 1,15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 여성 리더십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의 목적은 각계각층의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실시와 실직·구직 여성들이 자신의 직업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과정을 준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단체 지도자 리더십 교육과정 3회에 97명, 여성단체 임직원 실무향상과정 1회에 20명, 직업설계 교육과정 6회에 189명 등 총 306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교육과정은 1박2일 과정과 1일 단일교육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총 14회 480명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 실직·구직 여성을 위한 직업설계교육, 중소기업체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교육, 중·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멀티미디어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 부모교육강사 양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의 목적은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여성전문인력을 개발하고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 2박3일, 합숙교육 4회, 특별교육 1회 등 총 5회를 실시하여 53명의 강사를 배출하고 현재 37명의 강사가 31개 시·군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년 1월부터 6월 중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2000년 6월까지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2000년 6월에 수료식을 거쳐 새로운 강사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 모자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모자세대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과 가족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자립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99년 8월 모자자립 시설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자자립시설 등록을 정식으로 마쳤으며, 모자가정 힘실어주기 수련회 1회,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연중제공, 자녀대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학습지도, 집단상담 등을 통해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상담과 취업알선 등을 연중 실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0년 1월 중에 모자자립시설 상담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2000년 5월과 10월에는 여성복지시설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세미나 개최, 2000년 9월에는 모자자립시설 시·군 확대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99년 2월 의회 개원시 보고하지 않은 업무로서 센터에서 별도로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7쪽 모자자립시설 복지전문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센터가 관리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은 10세대 28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으로서 사회적응훈련 및 전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없어 실질적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모자가정에 별도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모자가정 힘실어주기 수련회를 7월에 1박 2일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수련내용은 명상훈련, 인생설계, 공동체 학습, 자녀와 함께 하는 연극 등이 되겠습니다. 총 5회에 걸친 모자가정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용인시의 협조를 얻어 추석날 가족나들이를 에버랜드에서 실시했으며 모자자립시설 입주자녀 지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로써 생활지도와 숙제지도, 학습습관 향상,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방과 후 자녀 특기교육으로써 주3회 컴퓨터교육, 주1회 미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본 센터를 수료한 직업훈련 교육생들이 자원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반응이 좋았던 모자가정 힘실어주기 수련회 개최와 모자가족 자립의지 향상교육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한 모

자가정 퇴소에 따른 퇴소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모자가정들을 위해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30쪽 자기성장을 통한 조직력 향상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은 조직내 적응력 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며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자기성장, 조직내 구성원의 상호관계 증진을 통한 조직력 배양에 있습니다. '99년 3월에 멀티미디어 PC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과 '99년 9월에 새로 입사한 애니메이션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탐색 집단상담 특별교육과 생애설계를 위한 집단상담 특별교육 1회, '99년 9월부터 11월까지 SOHO입주업체 6개팀을 대상으로 한 조직능력 배양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에도 기숙사생과 SOHO입주업체를 위한 배양훈련, 대인관계 향상훈련,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교육훈련을 위한 기숙사생 및 SOHO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비하고 부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부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의원님과 우리 도 여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21세기에는 저희 센터가 여성전문교육기관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윤학상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구 위원 박윤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충실히 해주셨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 상황중에서 교육내용을 보면 전문기술교육 즉 컴퓨터기초교육, 취업적응교육, 여성리더십교육 등이 있는데 이중 전문기술교육의 경우 웹디자인, 그리고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같은 교육은 너무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대상의 폭 또한 좁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전문학원에서나 해야 되는 교육이 아닌가 싶고 전문학원에서도 고가의 수강료를 징수해서 상당한 기간을 교육하는 교육인데 과연 이 교육이 전문교육으로서 손색이 없이 능력개발센터에서 해낼 수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 여성 리더십교육의 경우에 교육실적이 안양시, 오산시, 여성단체 임원에게만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기도 전 지역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과 지역에 한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다. 경기도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부 계층보다는 저학력, 저소득층 등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센터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데 소장의 의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쪽하고 17쪽에 보면 여성정보 기초화 사업에 있어서 가칭 경기여성정보라는 책자를 금년 말에 발간한다는 계획으로 공공근로자 연 인원 5,589명, 조사원이 이중 3,181명 그리고 입력원이 1,962명, 반장이 446명, 조사원과 입력원은 이해가 가는데 반장의 역할이 뭐였는지, 이 인원들이 보육시설 여성사회교육기관 자원 봉사 등 4,604개, 즉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 5,589명이 4,604개의 기관을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조사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조사원 3,181명이 약 1.몇 개 정도만 하면 되는데 5,540…….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연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 박윤구 위원 연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에 비해서 투입인원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실시를 통한 여성실업을 해소한다는 비예산사업이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인원을 투입함으로써 각 시·군의 공공근로 인건비만 낭비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공공근로사업이 짧은 교육기간에 이러한 교사가 컴퓨터 입력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것 또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여성정보 책자가 12월에 정상적으로 발간될 수 있는지 또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경기여성정보 기초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조사원이나 입력원 관장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자체 내의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자료 74쪽에 과정별 교육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능력개발 교육과정은 여성의 조직리더십 향상,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의식고취를 목표로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적응력 및 잠재력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응력 활성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정결과 교육효과라고 현재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이 효과가 애매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후에 답변하실 적에 어떻게, 효과라고 하면 대강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제출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여성 리더십교육이 1박2일의 교육시간이 순교육에만 할당되는 시간이 10시간 정도예요. 이틀 동안 10시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었겠는가? 정말로 여성의 리더십이라든지 직무향상, 기타 등등에 대한 여성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교육이라면 1박2일은 그저 적당히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분명히 보고서에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으며, 좀전에 박윤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교육 수강생들이 대개 각 시·군에서 여성단체 임원 내지는 그런 분이예요.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1박2일 동안에 10시간 훈련시켜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서에 나왔으니까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남 위원 우선 자료요구 좀 먼저 하나 할게요. 지금까지의 연도별로 수료가 총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와의 차이점을,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소장이 생각하는 견해를 좀 이따가 답변시에 밝혀 주십시오. 이것을 왜 들으려고 그러냐 하면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회관과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문구가 있어서, 세계의 변화속에서 여성의 삶의 변화를 진단하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여성단체 지도자들의 역할, 나아가 지역사회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사실 이 말의 뜻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실제적인 목적이나 이런 내용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취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술교육, 어디서나 학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재차 여성개발능력센터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스럽고 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매일 같이 동등한 입장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여성지도자가 나왔을 때도 그 여성지도자가 실제적인 실력을 갖추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여성을 배양할 수 있는 곳이 곧바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기도의 여성을 가다듬어야 할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견해하고, 그 다음에 2000년 새천년부터 우리 소장께서는 이런 리더, 정말 참신한 경기도여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맨날 제과제빵 굽는 것이냐 만들고 컴퓨터나 두드리게 해서 간단한 그러한 여성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성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여성이라든가 진짜 앞서갈 수 있는 경기도의 여성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

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구 위원 이따 답변 주실 적에 사업 참여인원을 실제 조사원의 인원, 그리고
입회수를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
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학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
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구 위원 잠깐만, 답변을 하시기 전에 수강생 거주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 자
료제출이 잘못된 모양이죠? 그 설명부터 해주시고 하시죠.

○ 여성회관장 홍수자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시·군별 거주자 현황이 잘못되어서 우
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출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잘못
된 숫자나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자료를 드리게 돼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박윤구 위원 지금 이것 말고 제출한 다른 것에도 혹시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홍수자 현재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발견치 못했다는 것은 그 동안 해 왔던 것을 꾸준히 성의있게 보
고 제출해야지 무작정 제출하면 돼요?

○ 여성회관장 홍수자 챙기느라고 열심히 봤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
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윤구 위원 자료를 보시면 오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통계수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으로 돼서 보관하게 되고 참고하게 되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것을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한 경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게 자료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회관장 홍수자 잘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오경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의 당면 개선책과 새천년의

계획이 미흡한 것 같고, 문화교육보다는 소외계층에 대한 기술교육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시다만 현재 당면한 개선책으로 강사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공개채용해서 전문적이고 유능한 강사채용을 위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1월 25일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고 2000년도에는 직업상담사, 환경모니터 양성, 자원봉사 지도자과정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수원권 중심교육을 탈피해서 원거리에 있는 농촌 여성에게도 지역실정에 맞는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자녀지도를 위해 어머니가 먼저 과학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부모역할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일반 여성들보다 우선해서 모집하고 수강료를 면제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향후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경렬 위원님께서 취업실적을 보니까 3,189명 중 일일파출부가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가입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취업을 돕고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파출부 일이기 때문에 파출부를 연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회원가입비나 월 회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번, 일일파출부들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업의식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또 자기네 스스로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오경렬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의 예식장 등 복지시설 운영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식 건수, 도서실 이용 건수가 현저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예식장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대부분 동거부부 등 저소득 계층이라고 봅니다. IMF의 어려움을 사회적 현실로 볼 때 예식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며 예식예약을 해 놓았다가도 경제 여건상 예식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예식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예식장의 경우도 저희와 비슷한 형편으로 예년에 비해 예식이 많이 감소하여 예식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더 많은 예식을 유치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실의 여성정보 관련자료를 확보·비치해서 수강생은 물론 일반 시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께서 예식장 무료이용 건수가 적은 데 홍보에 적극성이 결여되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여성회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계층의 무료이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 도 공보관실에 3회, 지역방송과 신문방송에 3회, 조선일보 등 중앙지에 3회, 생활정보지에 3회, 주

간경기, 경기넷여성회관 홈페이지 등에 계속 홍보를 해 왔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들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도 해줬고, 또 그렇게 방문을 해서 처리해 준다고 홍보도 했습니다. 예식의 경우 예식장 사용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예식의 사용료 외에 음식대접 등 피로연에 경비가 별도로 들기 때문에 무료예식을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저소득 계층이 예식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경렬 위원님께서 수강생 모집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을 모집함에 있어서 3내지 4주 전에 계속해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중앙지 및 지방지신문, 주간경기, 생활정보지, TV유선방송 등 경기방송 또 모집 홍보물을 배포하고 시·군에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겠다는 그것은 접수를 2일 동안만 받는 것입니다. 전에 3내지 4주 동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접수는 그 날을 정해서 받는 것입니다.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추천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간에 오신 분에 한해서 함께 추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달이 생기는 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모집 접수기간이 이틀밖에 안되고 이것도 기간이 짧은 것 같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유아실도 수강생의 자녀가 수탁·보육되기 때문에 저희 회관 수강생 모집 때마다 함께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수강등록하는 분들이 자녀들의 보육을 위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 여성회관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은 도나 시·군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능력개발,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여성복지 증진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여성의 복지기능과 여성 사회교육 기능을 균형있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도 여성회관과 시·군 여성회관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분리되지 않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사업이 완료된다면 도와 시·군 여성회관의 기능은 특화되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 여성회관은 도내 여성회관 직원이나 강사의 연수재교육, 상담원 자원봉사자의 전문훈련을 시키는 도내 여성회관의 청결지원 기능과 조사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여성복지 서비스에 지역거점 역할과 도내 여성사회 교육기관간의 협의를 구성·운영하고 또한 인근지역 여성들을 위해 상담실 기술교육, 문화교육, 교양교육, 참여의식 교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김기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조례개정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7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 중 수강료를 수강시간, 과목, 횟수 기술과목과 문화과목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만원을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코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강료 차등징수제를 도입하고 사용료 등 면제범위를 구체화하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보완코자 합니다. 사용료 등 규정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별로 주 몇 회를 나오느냐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교육 수강생의 대회입상과 관련해서 문화교육 수료생 및 수강생의 '99년 대회입상이 65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대회에서 입상했는지와 대회입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여성회관 수강생 및 수료생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양장부문 은상, 한복 부문 동상과 장려상을 한글, 서예부문, 한문서예 4군자 등은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경기도 서예전람회, 홍재미술대전 중부 서예대전 등에서 38명이 특선과 입선을 했으며 사진은 성남 전국사진공모전에서 동상을 비롯해서 경기사진대전, 경기문화예술관광전, 각 공모전에서 20명이 입선했고, 수원시 기예경진대회에서 서양화가 최우수, 우수 2명, 또 컴퓨터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정원의 등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 등을 정원의 등록으로 우선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99년도에 정원의 등록방법과 인원은 어떻게 되고, 정원의 등록자는 수강료만 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료비를 지원해야 많은 저소득 계층이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원의 등록자의 현황을 보면 '98년도에 전체 18명이 등록됐습니다. 모자세대가 2세대, 생활보호가 2명, 실직가장이 14명 해서 18명이 등록을 했는데 양재과 1명, 미용과 1명, 한복과 1명, 요리과 2명, 커튼창업과 1명, 컴퓨터과 2명, 제과제빵과 2명, 생활한복과 1명 이렇게 해서 '98년도에는 18명이 등록됐고 '99년도에는 총 72명이 등록됐습니다. 모자세대가 2명 생활보호가 29명, 실직가정이 41세대가 됐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미용이 5명, 꽃집 창업이 1명, 생활한복이 2명, 수지침 1명, 아동 글쓰기지도 1명, 양재 6명, 요리 24명, 제과제빵 8명, 컴퓨터가 23명, 홈패션 1명 이렇게 해서 '99년도에는 72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교육시 필요한 재료비를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사 공개모집과 관련해서 2000년도 교육을 위해 새로이 공개모집중이라고 했는데 자격기준 응모현황, 심사기준, 심사위원 합격자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서면으로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서면은 서면인데, 주요 강사 인적사항에 경력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 했는데, 첫장 10페이지만 해놓고 11페이지는 기재도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너무 부실하게 해 놓으면 되겠어요? 본 위원장한테 다시 제출하세요.

○ 여성회관장 홍수자 강사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사양성반 과정과 관련해서 '99년도에 강사양성반을 신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양성반 수료생 중 시·군 여성회관 등에 강사로 채용된 실적이 있는지 또한 강사양성반의 교과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개인별 강의 희망과목, 기간 등을 조사해서 강사운영을 개설한 후 희망지역의 시·군과 교육청 등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요리부문에서는 우선 우만사회복지관에서 강사양성반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요리강사로 한 분이 강사를 하시고 또 바둑부문에서는 송죽초등학교에서 바둑강사로 지금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선물포장 부문에 있어서 한 분이 각종 단체에서 선물포장 강사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 강사양성반은 26일에 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료하는 강사양성반 수료생들이 해당 전문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강의경험을 갖도록 하는 등 유능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사회교육부문에 10주, 컴퓨터부문 10주 해서 20주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사회교육내용은 여성사회교육 강사의 아이덴티와 리더십 개발, 여성사회교육의 현황과 미래사회형 교수수요 전망, 여성사회교육의 정보화와 가상학습, 여성사회교육을 위한 직업상담, 학습상담의 실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다양한 사회교육비법과 노하우, 미래의 직업 세계변화와 여성사회교육의 방향, 새로운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전망, 여성 성인의 심리와 학습특성, 여성사회 교육자의 일감개발과 미래준비를 위한 실천계획 청사진, 이러한 순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교육 관련 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실적내용 중 40%가 여성회관 내에서의 봉사내용으로, 이는 실적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 중 여성회관에서의 각종 행사지원 및 매월 개최되는 아나바다 장터에서의 자원활동도 자원활동의 일부이므로 실적에 포함한 것이며,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첨부시켰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올해 동두천시, 파주시, 연천군의 수재시에는 직접 김치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고 쌀 40포, 또 수강생들이 거의 모두 참여를 해서 속옷 한 벌씩을 가져와서 전달하는 등 약 75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3회에 걸쳐 노력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 진정서 등 민원처리내역이 없는데 수강생의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이 아니냐, 관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강생의 민원수령을 하기 위해서 수료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수시로 교육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홈페이지에 참여방을 개설해서 수시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건도 없다고 제출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후에 한 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중국어반을 계속 존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원권 중심 운영 탈피마련과 관련하여 모집정원의 50%를 수원외 거주자 우선 모집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용인 등 인근지역별로 거주현황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수원권 중심 운영 탈피계획으로 수원외 지역의 거주자에게 모집정원의 50%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모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치결과 완료했다고 표기한 것은 50%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모집하는데 배정했다는 의미지, 50%가 전부다 시외의 사람으로 완료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등 인근지역별 수강생 거주자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인적사항을 전 위원에게 전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전 위원에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윤학상 위원장님께서 도예, 공예 등의 강사인적사항을 볼 때 전공분야가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5년간 강사채용내용과 자격증반에 대한 5년간의 자격 취득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사의 전공분야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강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사모집을 통해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해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년간 강사채용내용과 자격증반에 대한 자격 취득률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시·군별 거주자 현황이 '98년과 '99년이 비슷한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각종 기술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회관이 평생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과의 지원실태와 대기자 숫자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으셨으므로 이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 가정마다 컴퓨터갖기 운동을 함에 따라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바,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컴퓨터교육을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며, 하반

기에 컴퓨터과 2개반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강의실에 20대씩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특강을 실시하고 또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 3시 30분부터 5시 30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비해서 교육숫자가 적은 것은 컴퓨터의 한정된 대수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여성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기초무료교육을 현재 1개반에서 2개반으로 증설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18명에 대해서 무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윤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연도별 세출·세입대비사항을 보면 '98년도 세입은 1억 8,001만 2,000원이고 세출은 2억 1,656만 6,000원으로 '99년도에 비해 세입이 훨씬 증가되고 세출은 줄었는데 '97년도의 세입이 훨씬 증가되고 세출은 줄었는데 수강료가 인상된 것인지, 또 세출이 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결산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에 교육할 수강생모집을 전년도 12월에 모집해 왔었으나 '99년도에는 교육수강생에 대해서 모집을 '99년도 1월에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의 세입이 훨씬 증가하게 되었고, 세출 면에서는 '98년도의 교육기간이 4개월씩 해서 3기로 12개월 풀로 교육이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서 강사수당과 재료비의 지출이 좀더 많았으며, '99년도에는 교육기관이 주로 5개월씩 2기로 실시하는 관계와 아직 2개월이 더 남아 있는 금년 10월말까지의 지출실적 관계로 '98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금액이 적어지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이나 모든 것은 성실하게 진실된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웅 위원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웅 위원 일괄질문, 일괄답변과정에서 관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수강생 시·군별 현황에 잘못된 것을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사과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나는 국문학적으로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사과를 받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여성회관장 홍수자 네.

○ 김영웅 위원 오늘 적어도 새로운 자료를 이 자리에 제출하려면 당초의 자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출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고 다시 여성회관을 들어가보니까 어느어느 장부 속에 새 자료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당초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당초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이 자리에 지금 도위원이 몇 명이 앉아 있다고 해서 도위원 몇 명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를 받는 게 아닙니다. 900만 경기도민 앞에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여러분이 사업한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기도민 앞에 ‘사과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마디로 될 것 같습니까? 경기도민 앞에서, 위원장 앞에서 선서를 했어요, 위증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까 자료제출은 위증이라고 인정합니까? 답변 못하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나왔을 적에는 먼저 자료는, 예를 들어 '97년 자료입니다, '96년 자료입니다 할 수 있겠지, 그것도 보자고 하면 곤란하지만. 점심식사하는 2시간 동안에 어디가서 새 자료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에요. 새 자료를 가져왔으면 그 자료를, 시·군별 현황에 대한 현황 장부접수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내놓고 하나하나 세보니까 이렇습디다, 이렇게 제출해야지 감사를 받는 정당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 얘기에요. 사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초에 제출한 자료는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답변 못하겠습니까? 후에 가져온 자료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 여성회관장 홍수자 저희가 수강생에 대해서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그 자료를 출력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웅 위원 컴퓨터의 오류입니까?

○ 여성회관장 홍수자 컴퓨터의 오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저희의 착오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 김영웅 위원 아니, 착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착오가 났다는 말씀을 해줘야지요, 컴퓨터의 착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에 제출한 자료는 '98년의 총계가 4,537명이에요. 그런데 2시간 후에 가져온 것이 총계는 4,786명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착오가 왔는지. 컴퓨터의 착오라고 날더러 인정하라 이겁니까?

○ 여성회관장 홍수자 아닙니다. 컴퓨터가 착오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컴퓨터에 그것을 다 수록을 해서 자료관리 하는데 거기서 자료를 입력하는 직원이 잘못 계산을 해서 그런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 김영웅 위원 컴퓨터에서 계산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 출력은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박윤구 위원 그것을 한 실무자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 오경렬 위원 직원 나와서…….

○ 여성회관지방기능9급 윤준호 죄송합니다. '99년도에 4,750여명하고…….

○ 위원장 윤학상 아니, 누구인지 이름을 대고 소속을 얘기해야지.

○ 여성회관지방기능9급 윤준호 여성회관 교육계 직원 윤준호입니다. '99년도에 총계가 4,755명이고 '98년도에 4,537명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하고 '98년도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김영웅 위원 어디 똑같이 되어 있어? 제출자료는 '98년에는 4,537명이고 당초 제출한 자료에, 지금 '99년은 4,755명이에요. 그것도 달라요.

○ 여성회관지방기능9급 윤준호 네.

○ 김영웅 위원 그런데 뭐가 똑같아요?

○ 여성회관지방기능9급 윤준호 4,537명에 저희가 컴퓨터 무료교육실시한 게 218명인데 그 숫자를 더해서 들어간 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 김영웅 위원 다시 한 번 말해 봐요.

○ 여성회관지방기능9급 윤준호 지금 총계가 4,755명하고 4,537명하고 더하기 빼기하시면 218명이 차이가 나는데 컴퓨터 무료교육한 게 218명입니다.

○ 김영웅 위원 그렇지요, 218명 있지. 아까 내가 지적한 218명이 더 플러스 됐지.

○ 여성회관지방기능9급 윤준호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드려야 하는데, '98년도에 218명을 더한 게 밑의 숫자입니다.

○ 김영웅 위원 그러니까 당초 제출한 4,537+218하면 4,755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 여성회관지방기능9급 윤준호 네.

○ 김영웅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관장은 이런 식으로 답변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 박윤구 위원 문제가 그게 아니고 지역별로 안배를 한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김영웅 위원 글썄 총계는 그렇고. 그러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당초 제출한 자료는 성남을 예로 합시다. 제출한 자료는 19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1명이거든요, 이번에 제출한 게. 그러면 착오가 난 218명은 당초 제출한 자료에, 218명이 착오가 난 것이지. 그런데 그 뒤의 것은 제대로 된 '98년도 정확한 숫자를 다시 뽑아낸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에요?

○ 여성회관장 홍수자 네, 그렇습니다.

○ 김영웅 위원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아듣겠는데 의회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큰일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을 우리가 문제 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에 서. 앞으로 잘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홍수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남 위원 본 위원이 맨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2000년을 맞는 관장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 같은데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 여성회관장 홍수자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새천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것과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제가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 장영남 위원 한 가지만 제시를 해 볼게요. 그래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면 각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 박윤구 위원 아니, 여성회관.

○ 장영남 위원 여성회관이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시·군의 여성회관이나 경기도여성회관이나 여기 북부여성회관 관장 계시니까 이따가 똑같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다는 같이 들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시·군별 여성회관 강사들 교육을 시켜서 각 시·군에서 여성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각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수강생들의 모든 것에 경연대회를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준다거나 그 지역을 도와주는 일, 또 한 가지 각 시·군에서 여성회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들을 개발해서 지원해 줘야지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경기도여성회관의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쿨트를 하든 요리를 하든 경기도여성회관에서 똑같은 것을 한다면, 경기도 전체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경기도여성회관 본연의 목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새천년에는 혹시 거대한 경기도 전체를 위한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 여성회관장 홍수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도 여성회관으로서 시·군 여성회관의 강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연찬회는 계속해서 실시할 것이며, 2000년도에는 시범교육과정으로 직업상담사교육, 환경모니터 양성교육, 또 여성자원봉사 지도자과정 이러한 새로운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또 어머니 과학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고,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에는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 장영남 위원 잠깐만, 그 부분은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시·군의 여성회관을 관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아까 세 가지 정도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경연대회를 한다면 이런 쪽으로 거기의 수강생들 전체해서 각 시·군이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내년에는 각 시·군의 여성회관에 굉장히 많이 지원해서 또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모든 것을 경기도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우수한 강사를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모든 체제를 갖춰줘야 경기도여성회관 본연

의 임무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니까 관장께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홍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경연대회 같은 것도 검토해 보고 좀더 도 여성회관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장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1년에 한차례씩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성회관장 홍수자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 오경렬 위원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감기관에서는 실·국별로 나와서 사무감사에 나름대로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홍수자 그 동안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새롭게 더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행정감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경렬 위원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의 행정을 평가하고 감시·감독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사전예방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치적용 문제에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위원들에게 자료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의 실수로 돌리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조치들을 취하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자료제출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무료사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것은 예식 건수를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답변은 IMF로 인한 가정사정,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혼들을 다 미룬다고 답변하셨는데 결혼을 가정사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미루는 것까지 우리가 해 달라고 부탁해서 결혼식을 하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식건수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나 장애인 이들에게 무료사용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무료사용현황 사유를 보면 '98년도에 장애자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던 횟수가 2회예요. 올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3회, 장애자가 2회입니다. 경기북부여성회관 현황을 보면 여기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경기북부여성회관의 무료사용현황을 보면 예식장이, 여기도 '98년도에는 가택보호자 1명, 자활보호자 1명, '99년도에 장애인 1명, 생활보호대상자 2명, 예식장 사용은 별 차이가 없군요, 양쪽다. 장애인들에 대한 홍보가 사실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북부쪽하고 양쪽 비교를 해 보면서 두 군데 다 홍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본 위원은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신다고는 했으나 장애인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 접할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각 지역의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홍보해 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회관장 홍수자 저희가 각 시·군에도 그런 자료를 주심사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안 와 가지고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대상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아직 한 군데에서 오지를 않아서 실제로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서민들이 무료예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우리가 요즘 세상을 뭐라고 하십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나누면 사실 없는 사람들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장께서 그러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관장께서 답변 중에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들이나 IMF로 인해서 그러한 사정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고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예식비는 무료라고 하나 음식이나 이런 것을 장만하는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에서 그들에게,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잔치인데 국수 정도라도 삶아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의회하고 협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여성회관장 홍수자 그런 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경렬 위원 어차피 무료개방을 해서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면 아무래도 여성정책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들에게 비용이 얼마 필요치 않다고 보아요. 그래서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사용건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이버도서관을 도에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면 도서관 사용건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안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취업알선 실적에서 3,189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일파출부가 정기파출부 포함해서 3,035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 등록된 파출부가 취업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파출부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다음 어떤, 그 사람 필요한 쪽으로 이쪽에서 연결해서 보내고 그러한 수도 있죠?

○ 여성회관장 홍수자 네, 그렇습니다.

○ 오경렬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숫자죠? 그런데 이게 3,035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숫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순수하게 3,035명이 취업한 숫자입니까?

○ 여성회관장 홍수자 파출 누계숫자입니다.

○ 오경렬 위원 파출 누계숫자죠? 나는 3,035명이 전부 취업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회원가입비나 비용은 일체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파출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여성회관으로 전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겠어요?

○ 여성회관장 홍수자 저희 담당직원이 매일 1시간 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 아침일찍 회관으로 나오십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 오경렬 위원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가입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체의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취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군요. 앞으로 여성회관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좀 도와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여성회관장께서 부담없이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 여성회관장 홍수자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 함께 꺾어야 할 그러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인원수가 굉장히 줄어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교육계장하고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체 강사들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개강, 수료를 하고 뒷정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계 인원이 좀 증원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상담실에 먼저 변에는 상담실장이 6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장 6급이 나이가 많아서 정년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퇴임을 했다고 그 자리를 아예 죽여 버리게 됐습니다. 북부여성회관에는 6급 상담원 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여성회관에는 8급 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도 6급 상담원이 배치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저희가 인사계라든가 조직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그 부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그 외에 회관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더 필요한 도움을 청하고 싶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여성회관장 홍수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오경렬 위원 지난 번 본 위원이 제144회 임시회에서 우리 여성회관장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정말 더위나 추위를 감내해 가면서 에너지 절

약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을 본 위원은 보면서.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반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행정감사의 지적사항들을 겹쳐히 수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조치사항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 여성회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을 통해서 아주 문책을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경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8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보고 못되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해이한 결과가 아니냐고 하시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락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리면서 '98행정사무감사자료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 계층의 이용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홍보부문의 계획과 예식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예식장 이용확대를 위하여 인터넷과 지역정보 지역신문 등 유선방송을 통하여 많이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의외로 3쌍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계층의 무료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장애인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결혼할 사람을 사전에 조사하여서 좀더 많은 실적을 구현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문화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군 여성회관과의 차별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까 수원 관장님과 같이 이것은 도나 시·군간에 목적은 같지만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취업에 가장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증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좀더차원 있게 인터넷 정보검색반과 광고디자인반, 또 경기민요반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작품전시회 때는 시·군에서 와서 보고 좀 배워서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운영프로그램 중 기술교육을 더 늘리는 것과 현장중심의 교육강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해 문화교육보다 기술교육을 현재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기술교육 외에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조사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미용과에서는 인근 미장원에 견학을 시킨 바 있고, 다른 과도

현장견학과 실습이 필요한 데는 가능한 장소를 파악하여서 현장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강사의 출신학교명, 세부경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이 제출된 자료에 강사의 출신학교명, 세부경력이 누락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정비과의 수업진행 사항설명과 교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과의 수업진행은 자동차의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기교육은 현장에 나가서 차를 직접 뜯고 설명을 듣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 요령이나 휠터, 오일갈기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직접 차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실기장소는 저희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실 운영 중 학대받는 여성 성폭력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적이 없는지, 상담원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현대 사회에 청소년들이 버릇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적 중 학대받는 여성상담이 9건, 청소년 상담이 26건, 성폭행 상담은 3건을 하였으며, 그 중 성폭행상담 내담자 3명은 임신중이며 출산하기를 원하여서 미혼모 시설 에스더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원은 상담실장이 하고 있으며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인 자로 연세대 사회교육원에서 자원봉사자 관리자반을 수료하였고 국립 사회복지원 연수원에서 성폭력 상담원반을 수료하였고 경기대학교에서 성상담 전문가과정을 수료한 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결혼식이 당초 예산에 10쌍이 계획되었는데 3쌍밖에 못한 것은 조사가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식당의 예산액이 각 쌍당 20만원씩 200만원이었으나 사실상 무료시행시 쌍당 40만원이 소요되어 부득이 5쌍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이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와 같이 홍보를 지역정보지나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에 하였으나 3쌍이 하고 2쌍이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도 한다면 12월 중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단체를 통하고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결혼 안 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의 여성지도자 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신세대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조사에 의한 2, 300 단위로 교육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신세대 여성에게 필요한 광고디자인반이나 인터넷 정보검색반, 기타 신세대에 맞는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수료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권유된 과목이 있으면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과 2, 300명 단위의 정원은 수강생의 다양

한 교육의욕과 여성취업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동창회의 회원수는 얼마인지, 회장은 누구인지, 조직구성은 어떤지, 음식바자회 준비비용과 수익금관리는 어떠한지, 작품전시회, 동창회에서 출판작은 무엇을 하였는지, 등산대회는 어디를 갔으며, 수해복구 참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동창회는 '91년에 개관하여서 조직되었으며 현재 21기가 수료되어서 기당 회장, 부회장, 총무해서 63명의 회원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꽃꽂이과를 수료한 제5기 동창회장 도기숙 씨가 맡고 있습니다. 동창회 활동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바자회는 동창회 스스로 조성된 기금으로 음식바자회를 준비하였으며, 수익금은 동창회에서 관리하고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쓰고 있습니다. 작품전시회는 작품은 출판치 않고 안내원으로 참여하여 작품 전시하는데 안내를 맡고 있으며 월 1회 회의개최와 함께 인근 도봉산이나 수락산을 등산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지원은 '98년도에 의정부 연천 등에서 실시하였고 '99년도에도 연천군과 파주시를 방문하여 빨래, 식기세척기 등의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북부여성회관장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상 떨어진 곳에서도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신 북부여성회관장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오경렬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렬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여성회관장님께 여러 가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북부여성회관은 상대적으로 보충질의할 게 적어졌습니다. 북부여성회관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십니까, 독자적으로?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내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 오경렬 위원 보고에서는 홍보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 오경렬 위원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고 있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경렬 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홈페이지는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시키는 것을 내년부터 인터넷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오경렬 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북부여성회관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계시지 않나요?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네, 하고 있습니다.

○ 오경렬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월별 접속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저희가 홈페이지에 수강생을 모집할 때 수료식이 있다는 가 또, 기타 꼭 필요한 과목을 신설할 때 그럴 때만 이용했지 월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 오경렬 위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연간건수도? 접속을 했으면 접속건수가 나오잖아요.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연간 10여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설과목을 할 때 마다 하니까요.

○ 오경렬 위원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10여건 정도밖에 접속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저희가 3회를 모집하고 기타 거기에 대해서.

○ 오경렬 위원 홈페이지 운영을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 오경렬 위원 작년도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홈페이지 접속에 10건도 안 된다면 지금 경기북부여성회관의 홈페이지 운영홍보가 전혀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면.

○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부터 누적 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올해 한 것이 홈페이지에 실린 것이 몇 건이냐.

○ 오경렬 위원 실린 게 아니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나가는 접속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담당없어요? 북부직원!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앉으세요. 다음에 돌아가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반드시 답변을 해주셔야지, 행정감사는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의 고장으로 인해서 잠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6시 0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학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평소에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윤구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김영웅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님께서서는 컴퓨터 교육과정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교육대상 폭이 좁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일반 전문학원에 비해 손색없이 교육을 해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전문교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설학원의 수강료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료시까지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서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취업에 필요하여서 본 과정을 수강하려고 하여도 쉽게 수강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국가기관 직업훈련기관에서는 남성중심 과정이 많아서 여성의 교육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설학원 수강의 10분의 1 수준인 월 2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본 교육생의 연령분포, 학력분포가 다양하여 교육대상폭이 생각보다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에는 컴퓨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만 해도 현재 62개 업체에서 구인을 하여 왔지만 저희가 보낼 인력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IMF를 맞아 고학력 미취업 여성인력이 많아 컴퓨터 전문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컴퓨터 전문교육은 급변하는 전문기술 교육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내 유명한 컴퓨터 전문학원과 위탁계약을 맺어 우수한 실력을 갖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직업기술 교육을 위한 고정강사가 없이 민·관과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여성취업전문 교육기관으로 그 동안 수원시 중·북부, 남부여성센터를 비롯한 각 시·도 여성회관 기관단체에서 견학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교육이 안양시, 오산시 등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시고 모든 계층, 경기도 전 지역을 소화해 내는 교육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계층에 한

정된 교육을 탈피하고자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우는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더십 교육은 '97년부터 시작하여 '97년과 '98년도에는 31개 시·군의 여성단체 임직원, 인천여성지도자, 여성단체실무자, 여성행정인,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실직구직 여성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맞는 리더십 교육이 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센터의 교육 호응도가 높았고 일부 시에서는 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위탁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리더십교육은 시·군의 위탁신청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연초에 각 시·군의 교육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교육생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차원의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도의 여성정책과 연구하여 보다 시·군에서 교육생을 골고루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교육프로그램은 경기북부여성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여성 리더십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중·고생 멀티미디어 체험학교, 도 연합 전국 31개 시·군 여성단체 실무자교육, 중소기업 여성근로자교육, 여성행정가교육, 여성복지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박윤구 위원님과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여성정보 기초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인원이 과다투입한 여부와 인원을 과다투입하여 시·군 공공근로 인건비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또한 공공근로 참여인원 1인이 조사한 기관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올해 실시한 여성정보화 기초화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업으로 현재 참여인원, 실제인원이 127명입니다. 총 연인원은 5,289명이었습니다. 이중 조사원은 91명, 입력원은 30명, 반장은 입력반장 3명, 조사반장 3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반장은 입력원 10인당 또는 조사원 10인당 1명씩 배치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한 일을 보면 조사표에 작성되는 소요시간은 1기관당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기관간 이동거리가 넓었기 때문에 실제 일일조사기관은 1인당 1개에서 2개 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이 조사하는 기관 내의 조사량이 워낙 방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입력원의 1인당 입력결과는 페이지가 A4용지로 9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글자만 입력한 것이 아니라 그림과 지도 등 각 이미지 작업까지 완료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입력원이 실제로 한 일은 일일입력 기관수가 2개에서 3개 기관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총 근로일은 1인당 약 115일이었습니다. 조사원은 1인당 54일이었고 이중에서 조사받는데 필요한 교육이 15일, 실제조사 39일을 하였습니다. 입력원은 1인당 115일 근무중에 교육을 20일간 받았고 입력은 95일 받았습니다. 이들의

교육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공공근로 대상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학력, 고연령, 저소득 실직여성을 공공근로자 대상자에 한정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들의 학력수준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따라서 조사방법과 면접요령, 또는 알파벳, 인터넷 입력문자인 HTML, 문서작성 교육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 수 소요되었습니다.

여성정보화 기초사업이 공공근로 인건비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여성 공공근로사업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 내의 전 기관, 여성보육기관, 어린이보육시설, 여성사회교육기관, 여성자원봉사기관 전 수를 조사한 최초의 자료를 집대성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보를 구축한 것을 보고 현재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센터의 DB를 모델로 하여 전국규모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저희가 이 방대한 자료를 모은 것을 보고 앞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단순히 인건비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실제로 5개월이상 일을 한 마지막 입력요원 17명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후 1명은 면사무소에 취업을 하고, 농촌진흥청 GIS사업과 교통개발원 GIS사업에 17명이 모두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단순히 교육과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일에 대한 완전한 취업으로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또한 여성정보자료집이 연내 12월 중에 발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여성사회교육기관과 자원봉사기관은 인쇄가 이미 의뢰된 상태입니다. 11월말과 12월초에 발간 예정이고, 교육시설은 현재 교정과 편집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사회기관과 자원봉사기관이 각각 약 700에서 800페이지 되는 자료로서 인쇄량이 상당히 방대하고 보육시설은 3,000개의 기관에 대해서 약 14만 페이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1권만 자료로 뽑아도 14만 페이지의 분량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여성정책국과 이 부분의 인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과 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경기넷과 저희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모든 자료를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파일을 나누어 줄 예정이고 될 수 있는 한 이 부분을 인쇄로써, 전화번호부 약 6권 분량의 자료를 기본 인쇄나마 해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박윤구 위원님께서도 경기여성정보 기초화사업에 참여한 공공근로요원 중 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사원이나 입력요원의 저소득, 고령자, 저학력 실직여성이었기 때문에…….

○ 박윤구 위원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장의 역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아니요, 조사원에 대한 역할이었습니다. 조사원과 입력원에 대한 역할을 했고요, 반장은 조사원 또는 입력원 10인당 1명씩 배정이 되었

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10명의 조사원이나 입력요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를 할당하고 조사요원의 조사표를 검토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잘못된 내용이나 부족한 내용은 재조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조사기관을 파악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조사표와 조사실적에 대한 문장수정, 맞춤법, 실제로 상당히 저학력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춤법 수정까지 다해야 되었습니다. 이들의 완성된 자료로써 종합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입력반장은 입력요원에 대한 워드와 HTML 등 컴퓨터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입력원들에게 입력업무를 할당하였습니다. 또는 입력원들이 입력한 내용을 검토해서 수정을 보완토록 하는 작업과 DB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검색하기 위한 기관명 번호부여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그래픽툴을 이용한 약도와 사진에 대한 인지작업을 이들 반장들이 하였고, 각 기관에 대한 시·군별, 정보내용별, 기관특성별로 색인작업하는 것을 입력반장들이 하였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여성능력개발센터 홍보상황과 센터 홈페이지 개설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의 TV, 경기방송,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등 대중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센터 홈페이지는 '98년 7월에 이미 개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주요내용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상세한 업무소개는 물론 매일매일에 대한 여성뉴스, 여성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보육시설, 사회교육기관, 자원봉사센터 약 4,000개 기관에 대한 정보와 여성전문인 500명에 대한 강사정보와 여성연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졸업생 작품 등 포트폴리오들이 게재되어 취업하는데 실제로 많은 취업 구인기관들이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들러서 작품에 대한 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 홈페이지가 각종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업훈련교육생, 기타 교육생 모집시에도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생 모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여성 리더십교육의 과정별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와 1박2일 동안 10시간씩 교육시켜서 시간만 때우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교육평가 설문지의 분석은 현재 교육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작업 중이며, 12월에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98년도의 교육평가보고서에 의거한 교육효과를 제시하자면 교육목표의 만족도, 교육운영의 만족도, 교육방법의 만족도 등 3개 범주의 만족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교육목표의 만족도는 여성의식, 자기개발, 자기표현, 인간관계향상, 역할수행능력 등 5개 항목으로 4점 척도 중에 3.5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교육운영 만족도는 교육기관, 교육시간배정, 교육인원, 교과

목 편성, 교육생 참여시간 등 5개 항목으로 측정하여 평균점수 3.2점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교육방법의 만족도는 참여식, 강의식, 조별토론 등 3개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고, 평균점수 4점 만점에 3.3점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센터 리더십교육의 만족도는 리더십교육 이후에 위탁교육이 시·군으로부터 증가하였고, 또한 올해 '97년도와 '98년도에 실시한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98년도에 실시하였던 중소기업 여성지도자교육과 여성행정인교육, 또한 여성복지인력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재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교육효과 분석은 평가보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동안 10시간씩 교육시켜서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라 시간만 때우는 교육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98년 여성 리더십교육은 2박3일 내지 3박4일의 교육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평가시에 교육생의 교육참여시 가장 큰 애로점이 교육내용은 좋으나 가족이 걱정되어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육요구를 받아들여서 단기간에 자주 주제별로 또는 일시별로 특화된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생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99년도에는 1박2일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교육에서는 비록 1박2일의 짧은 교육과정이지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35명이하의 교육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강의식이 아닌 참여 체험교육, 현재 신성교육으로 각광받는 참여식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도 여성단체 실무자교육은 각 시·군의 여성단체 소속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으며, 교육 주제별로 심화시켜 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이들 실무자에 대한 조직운영 관리기법에 대한 교육과 회계기초와 실무, 조직능력 향상에 대한 교과목을 다른 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서는 연도별 수료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기술교육 등에 있어서 여성회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000년도에는 어떻게 센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전체교육 수료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작성하여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교육 등에 대한 여성회관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잠재능력 개발교육과 복지시범사업, 복지인력양성을 통하여 남녀공동참여, 공동책임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표방하고 있는 목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자립방안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전문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크게 전문기술교육과 여성 창업지원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 지도자교육으로 31개 시·군

에서 각 부문별, 직능별 지도자반을 조직력과 지도자로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변화 매개자로 양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모자자립시설을 통하여 여성복지 시범적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복지 인력양성사업과 직업의식 교육사업, 여성창업자 지원사업과 경기도여성정보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의 장, 기술교육의 장의 역할과 주부대학 등 교양교육, 예식장·이용실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상담실과 자원봉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의 센터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내년도에 3차년도가 됩니다. 센터 설립당시에 3차년도까지 기초확립기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4차년도의 진입을 준비하기 위한 센터의 도약기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확립에 만전을 다지는 해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2000년도가 본격적인 지식정보, 문화산업, 사회 급진전에 따른 여성전문기술 인력수요가 보다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여성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에 체계적인 개발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기업규모가 축소되고 아웃소싱이 확산됨에 따라서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의 창업과 기업하기에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올해에 여성 SOHO창업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하여서 여성의 창업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여성 SOHO창업지원센터를 여성 비즈니스센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예비창업, SOHO 창업 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과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연계하는 사업과 이들에 대한 추후관리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여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정보화사회로부터 여성소외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여성에 대한 정보문외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별 정보활용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들에 대한 여중·고생 멀티미디어 체험학교를 운영하여서 미래정보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여성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성정보 DB구축과 여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지역간 정보공유와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이제까지 여성정보센터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여성종합자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제까지 저희 센터가 3개년에 걸쳐서 각종 여성정보 DB를 구축하고, 인터넷과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만 이제는 지역정보의 공유와 교류를 활성화시켜 본격적인 정보거점센터, 또한 여성들에게 정보가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자원센터로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졌습니다. 이는 흩어져 있는 경기도의 각종 자원을 연계하고 이들에 대한 의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네 번째,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지역 단위 수평적 연결망 구축의 필요에 따라 분별, 직능별, 지역별 변화 매개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집단별, 직능별 리더십 강화를 훈련하고 보다 이를 전문화된 교육으로 발전시키며 여성단체의 사회조직력, 자생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이를 위해서 미래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현장중심형 훈련프로그램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센터에서는 가정해체, 가정불안정성이 보다 더 확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네트워크 형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자가족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무교육강사와 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이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에 대해서 지역네트워크 형성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학상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남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센터소장님은 정말 기가 막힌 달변이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자료준비를 아주 말끔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감사를 할 때나 지금이나 센터의 변해진 모습은 사실 거의 없는데 어떤 질의를 우리가 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게 센터소장님이신 것 같아요. 아주 막히는 게 없이 잘 해주셨는데 아까 질의에서 위탁교육이 현재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것을 원하고 잘 된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아까 자료에는 오산하고 안양밖에 없었던 말입니다. 오산하고 안양을 지적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이상한 답변이 아닌가 그것 좀 지적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모자가정이라는 말보다는 여성가장, 어떤 제도 쪽에 위축감을 갖지 않고 교육을 받거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사기양양을 시켜 줘야지, 모자가정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누구 말마따나 과부들 교육시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모자가정보다는 여성가장 이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이 정보화에 굉장히 문외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여성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어디 시·군에 가더라도 남성회관 있습니까? 우리 남성들 컴퓨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배운 사람은 다할 수 있지만 컴퓨터교육도 쉽게 많이 받을 수 있고 많

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여성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사임당 교육만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모, 기성세대들이 자녀교육을 신사임당처럼 울곡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자기자식은 1등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자체에 모순점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많은 교육혜택을 받고 있고,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의식을 바꾸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어떤 많은 예산을 들인 좋은 교육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한 50대 되셨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아직 안 됐습니다.

○ 장영남 위원 그렇습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네.

○ 장영남 위원 만약에 능력개발센터소장이 저 같으면 20대나 30대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00년도, 3000년도를 내다본다 하는 그러한 장기교육을 현재에서 우리가 20년 후를 내다보려면 그때 지금 그 나이 수준이 주도했을 때 그런 교육도 많이 생각을 하고 진짜 지도자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충질의보다는 권고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 위원장 윤학상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박윤구 위원 간단하시면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웅 위원 간단히 할게요. 장영남 위원 말씀처럼 기가 막히게 답변을 잘 하시는데 설문조사내용 및 조치결과에 보면 말이지요, 교육목표 달성도, 교육운영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를 4점 만점에 평점이 3.2, 3.2, 3.3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대학으로 말하면 장학생 감입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요구할 게 있어요. 이 교육의 특징이 일방적 지식전달 위주의 기존방식이 아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기법을 도입했다, 다시 말해서 대화와 토론, 명상과 몸의 움직임 등을 통해서 자기점검과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교육,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육이다. 아주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방법을 표현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이틀간의 진짜 교육시간이 한 1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시 녹화테이프, 녹화해 놓은 게 없어요? 교육현장을.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97년도에는 했습니다.

○ 김영웅 위원 '97년도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줄어서.

- 김영웅 위원 그러면 '97년도 것은 벌써 옛날 것이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내일 모레 또 저희가 교육하는…….
- 김영웅 위원 이번에 교육 시작하는 전체현장을 녹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바쁜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잘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체 교육과정을 녹화해 가지고 녹화테이프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구 위원 감사시간이 끝 순서이시다 보니까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런 사정을 많이 참고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답변에서 조사 및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학력 여성이 많다 그래서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이 불가피했고 심지어는 맞춤형까지 수정을 해야 했다, 꼭 이런 저학력 여성으로 조사원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네.
- 박윤구 위원 뭘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대졸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31개 시·군에서 뽑아주도록, 그러니까 졸업한지 2년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원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근로 참여의 기준이, 31개 시·군을 통해서 이들 조사원을 확보를 했는데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가장 어려운 집단이 저학력, 고연령, 40대이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31개 시·군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킬 수밖에, 그분들의 생계가 너무…….
- 박윤구 위원 참, 안타깝네요. 임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에 맞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히 목표도달에 효율적이지, 이것을 억지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은 게 그분들을 데려다가 나중에는 취업까지, 이분들이 저희 컴퓨터교육을 거의 2개월씩 받으면서 취업까지 가능해서 1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 박윤구 위원 그래서 결과는 좋았다? 조금 우려가 돼서.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맞춤형까지 사실 다 틀려서.
- 박윤구 위원 그리고 지난 해의 감사당시에 지적사항이었는지 아니면 논의사항이었는지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만 컴퓨터교육 수료생 중에서 분당아파트 즉, 생활이 괜찮은 여성들이 도민이 내는 월세에 의존해서 즉, 영세민, 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세

금에 의존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던 것은 아이러니하다, 잘못됐다, 기준이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 됐었는데 금년 현황은 어떻습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97년, '98년도는 저희가 신청자를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구슬을 놓고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학력과 고소득 여성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올해는 일일이 면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 여성,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에게 우선 배점을 주었습니다. 저희 직업훈련생이 현재 46.0%가 가구소득 100만원이하로 나왔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박윤구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안배는 어땠어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지역안배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원거리는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안양과 성남 지역까지 가서, 지역으로 보면 수원이 23%, 성남이 24%, 용인이 36%고 기타 지역 나머지…….

○ 박윤구 위원 성남이라고 하는 것은 분당시도 포함돼죠. 아닙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포함됩니다.

○ 박윤구 위원 성남의 퍼센티지는 어떻습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성남에서도 성남의 어려운 지역을 저희가 분당지역과 차등화 두어서 점수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 박윤구 위원 그리고 작년에 감사 당시에 논의되었던 이 사항은 상당히 보완노력을 하셨네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 기타 지역이 17%입니다.

○ 박윤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학상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의 사회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한 진정한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윤학상 장영남 김기주 김영웅 박상호 오경렬 이영성 박운구 박혁규 어경찬

○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 지방행정주사 김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돈재
지방기능8급 문정란 지방기능9급 김민아

○ 출석공무원

여성회관장 홍수자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